

芝山先生이 주창한 膽膀胱 용어에 대한 연구

강경화 · 백근기¹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Study on the terms, 'Dam' and 'Bangwang'

Kyung hwa Kang, Geun Gi Baek¹, Kyung Chul K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In terms of Yin and Yang theory, Dam represents excessive Yang and deficient Yin, and Bangkwang means excessive Yin and deficient Yang. In terms of Ki and Hyung, Dam is vigorous Ki and flabby Hyung, and Bangkwang is strong Hyung and weak Ki. In terms of the balance of Ki and Blood, Dam is more Ki and less Blood and Bangkwang is the opposite. In terms of meridians concerned, Dam belongs to Joksoyangdam meridian(足少陽膽經) and Bangkwang belongs to Joktayangbangwang meridian(足太陽膀胱經). Mr. Jeesan saw that the person having vigorous Ki and flabby Hyung tends to be dynamic and the person having strong Hyung and weak Ki tends to be static and designated both as Dam and Bangkwang, respectively. Meridians are the route of Ki and Blood in the body and since their titles are thought to imply basic oriental medical theories, they are better choices to b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han other terms. In the 12 meridians, the 6 foot meridian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hand meridians because human beings adapt themselves to the earth. Among the 6 foot meridians, the 3 Yang foot meridians are more representative of the body since they cover more of the body. Joksoyangdam meridian(足少陽膽經) is related to more Ki and less Blood and thus is a relevant term to describe Dam. Likewise Joktaeyangbangkwang meridian(足太陽膀胱經) is related to more Blood and less Ki and thus can correspond to the term 'Bangkwang'. In addition, the Dam organ and Dam meridians meet the condition of excessive Yang and deficient Yin, vigorous Ki and flabby Hyung, more Ki and less Blood, on the other hand, the Bangkwang organ and Bangkwang meridians meet the condition of excessive Yin and deficient Yang, strong Hyung and weak Ki, more Blood and less Ki. Thus the terms of Dam and Bangkwang satisfy the basic concepts Mr. Jeesan established.

Key words : Hyung Sang, Yin-Yang, Jung-Ki-Shin-Hyul, Jang-Sang, Dam and BangKwang

서 론

의학의 대상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성¹⁾과 체질적 특이성²⁾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찰과 치료를 할 때도 인간의 보편성과 체질적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朴³⁾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이성은 언제나 形態나 機能 · 性情 · 色과 같은 형상적 특징으로 발현되는데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發顯象을 形色脈症으로 합일하면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形象醫學'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朴이 구분한 주요 形象으

로는 魚鳥走甲類와 精氣神血科 · 臟腑外候 · 六經形 · 男女老少 · 膽膀胱體 등이 있다. 이렇게 각각 분류된 形象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꼭 넓게 임상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朴이 어떠한 관점에서 각각의 形象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를 중 臟腑外候⁴⁾와 男女老少는 한의학

1)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손을 자유로이 움직여 기구를 사용하고, 직립보행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고도로 발달한 지능·이성·언어증후가 존재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몸은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뇌신경계 등 여러 계통으로 구성되어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보편성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으로 체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범주를 뜻한다. 예를 들어 위염이 생겼을 때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양방 치료법과 같은 범주를 뜻한다. (필자 주)

2) 徐振旭, 《체질의학원론》, p. 15 '체질적 특이성이란 체질로 인해 생긴 특이성을 뜻하며, 체질이란 개개인의 형태 · 기질 등의 생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병리상 개개인의 發病 경향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뜻한다.'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산 2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전수 : 2003/01/20 · 수정 : 2003/02/10 · 채택 : 2003/03/25

에서 일상적인 용어지만 그 외는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다. 魚鳥走甲類는 사람의 形象을 種의 개념으로 분류한 것인데 《黃帝內經素問·五常政大論》⁵⁾에 나오는 毛蟲·羽蟲·裸蟲·介甲蟲·鱗蟲의 개념과 유사성이 있고, 精氣神血科는 인체의 4대 구성요소인 精氣神血이 외부로 발현된 形象을 朴이 河洛文伏⁶⁾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류한 것이며, 六經形은 經絡의 氣血多少와 流注部位 및 氣血升降에 따라 외부로 발현된 形象을 6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膽體·膀胱體는 形氣盛衰에 따라 나타나는 形象을 動靜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는 膽體·膀胱體에 대한 것만을 논할 것이다. 왜냐하면 筆者는 평소에 朴이 왜 膽·膀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설정하였고, 이 용어가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형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임상실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膽·膀胱으로 용어를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몹시 궁금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芝山先生臨床學特講》 책들과 朴의 평소 어록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담·방광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이어서 담·방광의 형상적 특징과 理法方藥을 살펴본 다음 여기에서 얻은 담·방광에 대한 자료와 《內經》·《東醫寶鑑》 및 기타 문헌을 통하여 왜 朴이 담·방광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본론 및 고찰

1. 膽·膀胱의 개념

膽과 膀胱의 개념을 알기 위하여 먼저 朴이 생전에 출간된 책과 어록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藥이란 것은 對象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對象이란 뭐니? 바로 膽體와 膀胱體다.⁷⁾

○ 學生 : 이 책에는 사람을 볼 때 膀胱體, 膽體로 구분하는데 …, 왜 그렇게 구분하여야 합니까?

芝山先生 : 그 形에 그 痘이 오기 때문이다.⁸⁾

이상에서 사람을 膽體와 膀胱體로 구분한 것은 그 形에 그 痘이 오고, 그 形에 그 藥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도 “사람에 따라 形과 色이 다르고 膀胱도 다르므로 외부 症狀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⁹⁾고 한 것처럼 사람의 形象에 따라 병리가 다르므로 치료도 그 형상에 맞게 해야 한다.

3) 朴仁圭(1927-2000) : 號는 芝山, 韓醫師, 形象醫學을 주창하였다.

4) 五臟六腑의 상태가 밖으로 발현된 形象을 뜻한다. 예를 들어 膀胱의 누설은 鼻孔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필자주)

5) 이하 《黃帝內經素問》은 《素問》으로 《黃帝內經靈樞》는 《靈樞》로 약칭한다.

6) 河圖, 洛書, 伏羲八卦, 文王八卦를 약칭한 것이다.

7)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01

8)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p. 57

9) 許浚, 東醫寶鑑, 身形, p. 72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

○ 앞에서 모든 形象을 歸納하면 膽體와 膀胱體가 되고, 모든 脈을 歸納하면 膽脈, 膀胱脈으로 된다고 설명했었다. 이것은 모두 臨床醫로서 疾病을 가장 簡略하게 分別하여 把握하려는 하나의 方法論이다.¹⁰⁾

○ 形象에도 膽體, 膀胱體가 있고, 脈에도 膽脈, 膀胱脈이 있는데 混同할 것 없이 膽하면 陽盛陰虛하고 氣實形衰한 것을 생각하고, 膀胱하면 陰盛陽虛하고 形盛氣衰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¹¹⁾

이상에서 膽·膀胱은 形象 뿐 아니라 脈法에서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사람은 크게 男女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男子中에도 女子같은 사람이 있고 女子中에도 男子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四象을 歸納시키면 形盛氣衰(膀胱體)한 사람과 氣盛形衰(膽體)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¹²⁾

○ 形象醫學에서는 사람을 膽體와 膀胱體로 나눈다. 膽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陽盛陰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多氣少血하다. 膀胱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陰盛陽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少氣多血하다.¹³⁾

○ 膽體란 말은 두 가지概念을 가져야 한다. 첫째로, 形이 衰하고 氣가 盛한 것은 膽이다. 또한 陽이 盛하고 陰이 虛한 것도 膽이다. 膀胱體란 말은 이와 反對이다. 陰盛陽虛를 膀胱이라고 하고, 氣가 衰하고 形이 盛한 것을 膀胱이라고 한다.¹⁴⁾

이상에서 陰陽論의 膽體는 陽盛陰虛하고 膀胱體는 陰盛陽虛하며, 氣血論의 膽體는 多氣少血하고 膀胱體는 多血少氣하며, 形氣論의 膽體는 氣盛形衰하고 膀胱體는 形盛氣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曛는 热하고 夜는 寒하다. 고로 曛夜가 寒熱을 낳는다. …, 曛夜가 있기에 榮衛가 운행된다. …, 曛夜 寒熱이 陰體(膀胱體)陽體(膽體)를 만들었다.¹⁵⁾

○ 해가 길고 밤이 짧은 것을 陽盛陰虛라고 하고,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것을 陰盛陽虛라 한다.¹⁶⁾

○ 學生 : 氣의 榮衛와 味의 榮衛를 설명해 주십시오. 芝山先生 : 氣의 榮衛는 曛夜가 있기 때문이고, 內傷에서의 榮衛는 寒熱이 있기 때문이다.¹⁷⁾

이상에서 膽體와 膀胱體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曛夜 寒熱에 따른 榮衛의 운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學生 : 膽·膀胱을 人體部位에 配屬하면 어떻게 됩니까?

芝山先生 : 膽은 人體의 頭部와 前面과 膽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되고, 膀胱은 人體의 後面와 尾部와 膀胱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된다.¹⁸⁾

10)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1

11)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1

12)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01

13)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326

14)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82

15)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144

16)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142

17)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p. 130

잠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阴陽盛衰와 寒熱 · 燥濕 · 肥瘦의 관계

[寒熱]

○ 曛는 热하고 夜는 寒하다. 고로 曛夜가 寒熱을 낳는다. …, 曛夜가 있기에 榮衛가 운행된다. …, 曛夜 寒熱이 陰體(膀胱體)陽體(膽體)를 만들었다.³³⁾

○ 膀胱 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 …, 몸이 차거나 …면 膀胱體이다. 만약 …, 몸이 덥다면 膽體로 본다.³⁴⁾

여기서 양성음허한 담체는 热이 많고 음성양허한 방광체는 寒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素問 · 調經論》에서는 “陽虛하면 外寒이 발생하고 陰虛하면 內熱이 발생하며, 陽盛하면 外熱이 발생하고 陰盛하면 內寒이 발생한다.”³⁵⁾고 하였고, 《東醫寶鑑 · 辨證門》에서는 “陽勝則身熱 …, 陰勝則身寒 ….”이라 하였다.

[燥濕]

○ 濕體質(膀胱體)는 濕이 많으므로 밤낮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한다. …, 膽體는 陰虛로 보며 잘 눕지 않는다.³⁶⁾

○ 예를 들면 膀胱體는 舊亂이 오더라도 濕舊亂이 오고, 膽體는 乾舊亂이 온다.³⁷⁾

여기서 방광체는 濕이 많으므로 濕의 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담체는 陰虛하여 燥가 많으므로 陰虛證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霍亂이 생겨도 膀胱體는 濕霍亂이 생기고, 膽體는 乾霍亂이 생긴다고 했다. 燥濕과 陰陽의 관계에 대하여 《啓蒙傳疑研究》에서는 “대개 天地가 처음 생길 때 다만 燥濕 二氣만 있을 뿐이다. 燥는 陽에 되고 濕은 陰이 되며, 燥는 火가 되고 濕은 水가 된다.”³⁸⁾고 하였다.

[寒熱 · 燥濕 · 肥瘦의 상호관계]

○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热하여 모든 만물이 움직여 흘어진다. 그래서 血虛하여 여위어진다. 이렇게 낮에는 살을 빠지게 하지만 살이 찐 사람은 热을 견디기 어렵다. …, 밤은 寒하기에 모이고 오므라진다. 그래서 밤에는 陰血를 기른다. 이렇게 밤에는 추우니까 陰血를 길러 살찌게 하지만 血虛한 마른 사람은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낮에는 써먹고 밤에는 모은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 가는 가운데 曛夜의 길고 깊음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肥瘦로 나타난다.³⁹⁾

여기서 밤은 陰盛陽虛하며 춥고 靜하는 시간이므로 활동을 적게 하면 살이 찐다. 또 낮은 陽盛陰虛하며 덥고 動하는 시간이므로 활동이 많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寒하면 살이 찌고, 热하

면 살이 마르므로 寒熱 · 肥瘦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肥瘦와 寒熱 · 燥濕에 대하여 《東醫寶鑑 · 辨證門》에서는 “肥人은 氣虛하므로 寒이 생기며 寒은 濕을 생하고 濕은 痰을 생기게 한다. 瘦人은 血虛하므로 热이 생기며 热은 火를 생하고 火는 燥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热燥가 많다.”⁴⁰⁾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陽盛陰虛하면 內外로 热이 발생하여 燥하고 瘦하게 되며, 陰盛陽虛하면 內外로 寒이 발생하여 濕하고 肥하게 된다. 결국 陽盛陰虛한 膀胱體는 燥濕이 많고 瘦하며 陰盛陽虛한 膀胱體는 寒濕이 많고 肥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阴陽盛衰와 水火의 관계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 “水火者，陰陽之徵兆也”라고 하고, 《東醫寶鑑 · 腎臟門 · 腎病治法》에서는 “왼쪽 腎은 水에 속하는데 水가 부족하면 陰虛하고, …, 오른쪽은 火에 속하는데 火가 부족하면 陽虛하다.”⁴¹⁾라고 하여 水火와 陰陽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東醫寶鑑 · 眼門 · 不能遠視不能近視》에서 近視는 陰盛陽虛하여 생기는데 水가 많고 火가 적어서 생기고, 遠視는 陽盛陰虛하여 생기는데 火가 많고 水가 적어서 생긴다고 하였다.⁴²⁾ 그리고 離火卦(離)은 二陽一陰하고 坎水卦(坎)은 二陰一陽이다. 이상에서 火는 陽盛陰虛하고 水는 陰盛陽虛하고 볼 수 있고, 陽盛陰虛한 膀胱은 火, 陰盛陽虛한 膀胱은 水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陰盛陽虛과 陽盛陰虛에 대한 생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曛夜에 따라 서서[立] 행동하거나 누워서[臥] 休息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人體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動靜 機構가 형성되며, 그에 따라 인체의 榮衛氣血 운행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결과 陽盛陰虛한 動的인 膀胱體와 陰盛陽虛한 靜的인 膀胱體로 形象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陽盛陰虛한 膀胱에는 낮 · 여름 · 衛氣 · 動 · 寢 · 热 · 燥 · 瘦 · 火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陰盛陽虛한 膀胱에는 밤 · 겨울 · 榮血 · 靜 · 寢 · 寒 · 濕 · 肥 · 水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形盛氣衰와 氣盛形衰

(1) 形氣와 天地之氣

氣는 우주에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 관습적으로 펴져 있는 상태를 ‘氣’라 하고 形質이 있는 실체를 ‘形’이라 한다.⁴³⁾ 《內經》에서는 天地에 상응하여 사람의 形象이 구성된다고 보았다.⁴⁴⁾ 그리고 形과 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에 있어서는 氣가 되고 地에 있어서는 形이 되는데 形과 氣가 서로 감응하여 萬物을 化生한다.”⁴⁵⁾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보다

33) 地 산선생임상학특강VII, p. 144
34) 地 산선생임상학특강IV, p. 298

35) 洪元植, 素問, 調經論, p. 218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則內寒”

36) 地 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35

37) 地 산선생임상학특강 V, p. 57

38) 姜天奉, 啓蒙傳疑研究 p. 51 “蓋天地初生之時，只有燥濕二氣而已，燥者為陽，濕者為陰，燥者為火，濕者為水。”

39) 地 산선생임상학특강VII, p. 142

40) 許浚, 東醫寶鑑 · 辨證, 肥瘦辨病候 p. 341 “肥人 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 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

41) 元秦晉 外8弓 點校, 精校東醫寶鑑 · 虛勞, 腎臟纂, p. 713 “左腎屬水, 水不足則陰虛, …, 右腎屬火, 火不足則陽虛,”

42) 上揭書, p. 297 “能遠視, 不能近視者, 陽氣有餘, 陰氣不足也, …, 能近視不能遠視者, 陽氣不足, 陰氣有餘, …, 目能遠視, 貢其有火, 不能遠視, 貢其無水, …, 目能近視, 貢其有水, 不能遠視, 貢其無火.”

43) 裴秉哲, 基礎韓醫學, p. 395

44) 洪元植, 靈樞, 邪客 p. 298 “天圓地方, 人頭圓足方, 以應之. …, 此人與地相應者也.”

귀중한 것은 없다.”⁴⁶⁾고 하였고, “陽은 氣를 化生하고 險은 形을 만든다.”⁴⁷⁾고 하였다. 이렇게 만물은 天의 氣와 地의 形이 서로 감응하여 생기므로 인체도 形과 氣로 이루어진다. 이때 陽은 氣로 險은 形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形과 氣의 뜻에 대해서 《東醫寶鑑》에서는 “天에 있어서는 氣로 되는데 寒暑燥濕風이고, 地에 있어서는 形을 이루는데 金木水火土이다.”⁴⁸⁾고 하였고, 形氣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氣라는 것은 입과 코로 숨쉬는 기운이고, 形이란 皮肉·筋骨·血脈을 말한다.”⁴⁹⁾고 하였다. 이렇게 자연에서의 氣는 天의 三陰三陽인 六氣란 뜻이 있고 形은 地의 五行이란 뜻이 있다. 인체에서의 形은 몸의 외형을 구성하는 五體[皮肉脈筋骨]이고 氣는 호흡을 주관하는 氣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인체는 天地와 상응하여 形氣로 구성되어 있는데 形은 地·陰·五行·五體와 관계가 있고, 氣는 天·陽·六氣·呼吸之氣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形氣와 호흡[鼻]·음식[口]

[形氣와 口鼻]

○ 脣體는 形이 쇠하니 입을 크게 불여놓았다. 그러나 脣體 中에서도 입이 큰 脣體가 있고 입이 작은 脣體가 있다. 또한 膀胱體는 氣가 虛하니까 코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膀胱體도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사람이 있고 코가 작고 입이 큰 사람이 있다.⁵⁰⁾

여기서 形盛氣衰하면 코로 대기를 많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氣盛形衰하면 입으로 五味를 많이 섭취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하늘은 인체에 五氣를 공급하고, 땅은 五味를 공급한다. 五氣는 코를 통해 들어가서 心肺에 정장되어 위로 혈색을 좋게 하고 음성을 크고 낭랑하게 한다. 五味는 입으로 들어가서 肺·胃에 저장되고 각각 좋아하는 臟으로 들어가 五臟의 氣를 자양한다. 水穀의 氣와 五臟의 氣가 서로 도와 津液을 化生함으로써 神이 생기게 한다.”⁵¹⁾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輕清한 것은 氣를 쌓아서 象을 이루어 天이 되었고, 重濁한 것은 氣를 쌓아서 形을 이루어 地가 되었다.”⁵²⁾고 하였으며, “대체로 입은 땅 기운과 통하고 코는 하늘 기운과 통한다. 입은 險을 영양하고, 코는 陽을 영양한다.”⁵³⁾라고 하여 사람은 코로 경청한 天氣를 호흡하고, 입으로 중탁한 地味를

- 45) 洪元植, 素問, 天元紀大論 p. 233 “故在天為氣, 在地成形, 形氣相感, 而化生萬物”
 46) 上揭書, 賀命全形論 p. 97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47) 上揭書, 陰陽應象大論 p. 23 “陽化氣, 陰成形。”
 48) 許浚, 東醫寶鑑, 天地運氣, 五行生剋順逆, p. 331 “在天則為氣, 寒暑燥濕風也, 在地則成形, 金木水火土也。”
 49) 許浚, 東醫寶鑑, 辨證, 凡病辨有餘不足, p. 343 “夫氣謂, 口鼻中氣息也形謂, 皮肉·筋骨·血脉也, 形勝者為有餘, 消瘦者為不足也, 氣者審口鼻中氣, 勞役如故為氣有餘也, 若喘息氣促氣短或不足以息者為不足也, 故曰形氣也。”
 5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101
 51) 洪元植, 素問, 六節藏象論 p. 36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52) 對譯東醫寶鑑, 天地運氣, 天地之形 p. 859 “輕清者積氣成象而為天, 重濁者積氣成形而為地”
 53) 對譯東醫寶鑑, 風, 煙法, p. 956 “蓋人之口通乎地, 鼻通乎天, 口以養陰鼻以養陽, 天主清, 故鼻不受有形, 而受無形, 地主濁, 故口受有形, 而兼乎無形也。”

음식으로 하여 人體의 形氣를 기르며 천지자연과 상응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脾胃가 모두 脊성하면 잘 먹고 살이 찌나, 脾胃가 모두 虛하면 잘 먹지 못하고 여원다.”⁵⁴⁾고 하여 脾胃와 飲食과 形의 肥瘦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氣는 鼻·天氣·呼吸·瘦과 관계가 있고, 形은 口·地味·飲食·肥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形氣와 肥瘦·黑白의 관계

[形氣와 肥瘦]

《東醫寶鑑》에서 “살찐 사람이 중풍이 많은 것은, …, 역시 形이 盛하고 氣가 衰해서 그렇다.”⁵⁵⁾고 하고, “形이 勝한 것은 유여한 것이고 마른 것은 부족한 것이며, 氣는 입과 코로 숨쉬는 기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일할 때도 평상시와 같은 것은 氣가 유여한 것이고, 만약 喘息·氣促·氣短·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氣가 부족한 것이다.”⁵⁶⁾고 하였다. 여기서 形의 盛衰는 肥瘦로 氣의 盛衰는 호흡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데 肥한 것은 形盛氣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血이 盛하면 形이 盛하고 血이 약해지면 形도 쇠해진다.”⁵⁷⁾고 하여 形의 盛衰는 血의 盛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의 形은 長한 것이 短한 것만 못하고, 大한 것이 小한 것만 못하며, 肥한 것이 瘦한 것만 못하다. …, 게다가 形이 肥하면 濕이 많고 瘦하면 火가 많으며, ….”⁵⁸⁾라고 하여 形을 長短·大小·肥瘦로 구분하고 肥하면 濕이 많고, 瘦하면 火가 많다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氣와 色의 관계]

氣와 色의 관계에 대하여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天은 色을 만들고 地는 形을 만든다.”⁵⁹⁾고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天에 있어서는 氣가 되고 地에 있어서는 形이 된다.”⁶⁰⁾고 하여 色과 氣는 形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東醫寶鑑》에서는 “얼굴이 흰 사람은, …, 본래부터 氣가 虛한데 …, 얼굴빛이 검은 사람은, …, 본래부터 氣가 實한데, ….”⁶¹⁾라고 하여 얼굴의 黑白이 氣의 虛實에 의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東醫寶鑑》에서는 “色이 褐면 肺氣가 허하고, 검으면 腎氣가 충분하다.”⁶²⁾고 하였고, “色은 五臟精氣의 표현이다.”⁶³⁾라고 하였으며, 또 “인체의 구성은 안으로는 오장과 육부가 있고, 밖으로는 筋骨·肌肉·血脉·皮膚가 있어 그 形을 이룬다.”⁶⁴⁾고 하였으며, 《靈樞·五色》에서는 “五色으로 五臟을

- 54) 上揭書, 脾肺, 胃病虛實 p. 339 “脾胃俱旺,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55) 許浚, 東醫寶鑑, 風, 肥人多中風 p. 359 “所謂肥人 多中風者, …, 亦是形氣衰而然也。”
 56) 上揭書, 辨證, 凡病辨有餘不足 p. 343 “夫氣謂, 口鼻中氣息也, 形謂, 皮肉·筋骨·血脉也, 形勝者為有餘, 消瘦者為不足也, 氣者審口鼻中氣, 勞役如故為氣有餘也, 若喘息氣促氣短或不足以息者為不足也, 故曰形氣也。”
 57) 上揭書, 血, 血為榮 p. 106 “是故血盛則形盛, 血弱則形衰矣”
 58) 許浚, 東醫寶鑑, 身形, p. 72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 而况肥人濶多, 瘦人火多,”
 59) 洪元植, 素問, 五常政大論 p. 257 “天制色, 地制形”
 60) 洪元植, 素問, 天元紀大論 p. 233 “故在天為氣, 在地成形。”
 61) 對譯東醫寶鑑, 肥瘦用藥 p. 923 “面白人, 不可多服發散藥, 以其氣虛, 而又虧之也, 面黑人, 不可多服黃芪, 以其氣實, 而又補之也。”
 62) 許浚, 東醫寶鑑, 身形, p. 72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63) 對譯東醫寶鑑, 小兒, 痘痘形色善惡, p. 1737 “色者五臟精華, ….”
 64) 許浚, 東醫寶鑑, 集例 p. 69 “人身內有五臟六府, 外有筋骨肌肉血脉皮膚

명명하면 靑色은 肝이고 赤色은 心이며 白色은 肺이고 黃色은 脾이며 黑色은 腎이다.”⁶⁵⁾고 하였고, 《素問 · 陰陽離合論》에서는 “氣는 裏에서 形은 表에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⁶⁶⁾고 하여 내부에 있는 오장의 氣가 밖으로 발현된 것을 色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形盛氣衰하면 肥하게 氣盛形衰하면 瘦하게 나타나고, 形의 성쇠는 血의 盛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한편 色은 氣와 관계가 있고 氣의 虛實에 따라 黑白이 나타나며, 내부에 있는 오장의 氣가 밖으로 발현된 것을 색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形盛氣衰와 氣盛形衰를 종합해 보면 인체는 形氣로 이루어졌는데 形이란 인체를 구성하는 有形의인 것을 뜻하며 주로 肥瘦로 나타나고, ‘氣’란 無形의인 현상을 뜻하며 주로 호흡과 色으로 발현된다고 본다. 또 形은 地 · 陰 · 五行 · 味 · 口 · 飲食 · 五體와 관계가 있고, 氣는 天 · 陽 · 六氣 · 氣 · 鼻 · 呼吸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形의 盛衰는 血의 盛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形盛氣衰하면 肥하고 氣盛形衰하면 瘦하게 나타난다. 한편 形과 대비되는 氣는 色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膽은 氣盛形衰하고, 膀胱은 形盛氣衰하다.

3) 多氣少血과 多血少氣

(1) 氣血의 개념

氣는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인체의 氣는 부모에게서 받은 先天의 精氣와 음식물 속의 水穀精微 및 자연계에 존재하는 淸氣에서 근원하며, 肺 · 脾胃 · 腎 등 腸腑 생리기능의 종합적인 작용을 통해 생성된다.⁶⁷⁾ 그리고 血은 血은 색의 액체로서 脈를 따라 전신을 운행하며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물질이다.⁶⁸⁾ 이것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무엇을 血이라고 하는가? 기백: 中焦가 氣를 받아 汗을 취하여 붉게 변화시킨 것을 血이라 한다.”⁶⁹⁾ 또 “肝이 血을 받아야 볼 수 있고, 肺도 血을 받아야 겪을 수 있으며, 손바닥이 血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손가락도 血을 받아야 잡을 수 있다.”⁷⁰⁾고 하였다. 또 氣과 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血은 다 心에 속하고, 여려 氣는 다 肺에 속한다.”⁷¹⁾고 하였다. 여기서 氣와 血은 모두 생명활동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氣는 上中下焦에서 각각 생성되고 血은 中焦에서 생성된다는 것과 血은 心에 속하고 氣는 肺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血과 氣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血과 氣뿐이다.”⁷²⁾ 또 “血과 氣는 사람의 神이므로 삼가 기르지 않을 수 없다.”⁷³⁾고 하였고, “인체의 血 · 氣 · 精 · 神은 생명체를 길러 生命에 부합하

以成其形.”

- 65) “以五色命臟, 青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 66) “氣真形表, 而爲相成也.”
- 67) 裴秉哲, 基礎韓醫學 p. 427
- 68) 裴秉哲, 基礎韓醫學 p. 425
- 69) 洪元植, 靈樞, 決氣 p. 168 “何謂血. 岐伯曰: 中焦受氣, 取汗變化而赤, 謂血.”
- 70) 洪元植, 素問, 五藏生成 p. 39 “肝受血而能觀,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 71) 洪元植, 素問, 五藏生成, p. 39 “諸血者皆屬於心, 諸氣者皆屬於肺.”
- 72) 洪元植, 素問, 調經論, p. 218 “人之所有者, 血與氣耳.”
- 73) 洪元植, 素問, 八正神明論 p. 101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

도록 하는 것이다.”⁷⁴⁾고 하였다. 여기서 사람은 血과 氣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것은 사람이 天地의 氣를 받고 태어날 때 天의 陽氣는 氣로 地의 陰氣는 血로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血氣는 사람의 神이므로 잘 길러야 하고, 이러한 血氣精神은 생명활동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氣血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氣는 上中下焦에서 血은 中焦에서 생성되며 血은 心에 속하고 氣는 肺에 속한다. 그런데 血과 氣는 사람의 神이므로 잘 길러야 한다. 이렇게 자양된 血氣精神은 생명활동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게 한다.

(2) 氣血과 榮衛 · 陰陽의 관계

氣血과 榮衛의 관계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營에서 血을 취하고 衛에서 氣를 취한다.”⁷⁵⁾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氣는 衛가 되고”⁷⁶⁾, 血은 榮이 된다.”⁷⁷⁾고 하여 氣와 衛, 血과 榮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 陰陽과 氣血의 관계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氣를 받고 생겼는데 하늘의 陽氣는 氣가 되고 땅의 陰氣는 血이 된다.”⁷⁸⁾고 하였고, “陽虛即氣虛,”⁷⁹⁾ “陰虛即血虛”⁸⁰⁾라고 하였으며, “멀리는 볼 수 있는데 가까이는 볼 수 없는 것은 陽氣가 유여하고 陰氣가 부족한 것이다. 즉 血虛氣盛한 것이다. …, 가까이는 볼 수 있는데 멀리는 볼 수 없는 것은 陽氣는 부족하고 陰氣는 유여한 것이다. 즉 氣虛血盛한 것이다.”⁸¹⁾라고 하였다. 또 嚴⁸²⁾은 榮衛의 개념에는 氣와 血의 속성과 陰陽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氣 · 衛 · 陽과 血 · 榮 · 陰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氣血은 榮衛과 陰陽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陰陽論의으로 陽盛陰虛하여 動的인 脈體는 多氣少血하고, 陰盛陽虛하여 靜의인 膀胱體는 多血少氣하다고 볼 수 있다.

(3) 氣血과 肥瘦의 관계

《東醫寶鑑》에서 “血이 實하고 氣가 虛하면 血이 窮하고, 氣가 實하고 血이 虛하면 血이 虧된다. …, 寒하면 血이 상하고, 더우면 氣가 상하기 때문이다.”⁸³⁾고 하여 肥人은 血實氣虛하고 瘦人은 氣實血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脾胃가 다 脍성하면 잘 먹고 살이 찌나 脾胃가 다 허하면 잘 먹지 못하고 여원다.”⁸⁴⁾고 했는데 脾胃는 化氣化血하는 곳이므로 脾胃가 脍성하여 잘 먹으면 肥해지고 脾胃가 허하여 잘 먹지 못하면 瘦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肥人은 形盛氣衰하고, 血實氣虛하며, 飲食을 잘 먹어서 血이 찬다. 瘦人은 氣盛形衰하고, 氣實血虛하며, 음식을 잘

74) 裴秉哲, 今釋黃帝內經, 靈樞, 本藏, p. 361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

75) 洪元植, 素問, 調經論 p. 219 “取血於營, 取氣於衛”

76) 對譯東醫寶鑑, 氣, p. 157 “氣爲衛 衛於外”

77) 上揭書, 血, p. 209 “血爲榮”

78) 許浚, 東醫寶鑑, 虛勞, 人身陽有餘陰不足 p. 444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79) 上揭書, 虛勞, 陽虛用藥 p. 446

80) 上揭書, 虛勞, 陰虛用藥, p. 445

81) 上揭書, 眼, 不能遠視不能近視, p. 226 “能遠視, 不能近視者, 陽氣有餘, 氣不足也, 乃血虛氣盛, …, 能近視, 不能遠視者, 陽氣不足, 陰氣有餘, 氣虛血盛也.”

82) 嚴東明, 榮衛에 대한 고찰, p. 45

83) 許浚, 東醫寶鑑, p. 289 “血實氣虛則肥, 氣實血虛則瘦, 所以肥, 耐寒而耐熱, 瘦, 耐熱而不耐寒者, 由寒則傷血, 热則傷氣.”

84) 許浚, 東醫寶鑑, p. 153 “脾胃俱旺,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먹지 못하여 마른다. 따라서 膽體는 多氣少血하여 瘦하고, 膀胱體는 多血少氣하여 肥하다고 볼 수 있다.

(4) 氣血과 經絡의 관계

經絡은 氣血이 운행하는 통로로서 臟腑肢節을 연락하고 上下內外를 소통한다.⁸⁵⁾ 이것에 대하여 《靈樞·本藏》에서 “經脈은 氣血을 운행시키고 内外에 영양을 공급하며, 筋骨을 濡養하여 관절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⁸⁶⁾고 하였고, 《靈樞·海論》에서는 “十二經脈은 안으로는 臟腑에 속하고 밖으로는 肢節에 絡한다.”⁸⁷⁾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榮衛氣血은 經絡을 통하여 臟腑肢節 및 全身을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經絡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十二經脈이 있는데 이것은 手足三陰三陽經으로 구성되며 隕陽經이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 十二經脈은 氣血의 운행 통로이므로 氣血의 多少 상태도 각기 다르다. 이것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多氣多血한 것은 陽明經이고, 多氣少血한 것은 少陽經·少陰經·太陰經이며, 多血少氣한 것은 太陽經·厥陰經이라고 하였다”⁸⁸⁾라고 하였다. 그런데 朴은 膽·膀胱과 經絡을 배속시킬 때 다음과 같이 보았다.

[經絡]

○ 學生 : 膽, 膀胱을 人體部位에 配屬하면 어떻게 됩니까?
芝山先生 : 膽은 人體의 …, 膽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되고, 膀胱은 人體의 …, 膀胱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된다.⁸⁹⁾

따라서 多氣少血한 경맥 중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足少陽膽經이고, 多血少氣한 경맥 중에서는 足太陽膀胱經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膽·膀胱의 용어 설정’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이상에서 榮衛氣血은 經絡을 통하여 全身을 끊임없이 운행하는데, 十二經脈에 따라 氣血多少가 각기 다르며, 多氣少血한 經脈 중 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足少陽膽經이고, 多血少氣한 경맥 중 방광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足太陽膀胱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多氣少血과 多血少氣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氣血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요소인데, 氣는 上中下焦에서 생성되고 血은 中焦에서 생성된다. 또 血은 心에 속하고 氣는 肺에 속한다. 그리고 氣血은 榮衛와 隕陽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肥人은 形盛氣衰하고 血實氣虛하며 脾胃의 機能이 旺盛하여 음식을 잘 먹는 편이고, 瘦人은 氣盛形衰하고 氣實血虛하며 脾胃의 기능이 虛하여 음식을 잘 먹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氣血은 經絡을 통하여 全身을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다. 이때 十二經脈의 氣血多少 상태는 각기 다르며, 多氣少血한 經脈 중 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足少陽膽經이고, 多血少氣한 경맥 중 膀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足太陽膀胱經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膽·膀胱의 生理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컨대 의

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지만 조직과 운행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는 動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膽體], 靜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膀胱體] 이것은 사람을 運行 즉 動靜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한 膽·膀胱의 생리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膽·膀胱의 生理 特징

	膽	膀胱
01. 陰陽	陽盛陰虛	陰盛陽虛
02. 夏夜	晝	夜
03. 動靜	動	靜
04. 寢寐	寢	寐
05. 寒熱	熱	寒
06. 燥濕	燥	濕
07. 水火	火	水
08. 形氣	氣盛形衰	形盛氣衰
09. 天地	天(六氣)	地(五行)
10. 口鼻	鼻(호흡)	口(음식)
11. 肥瘦	瘦	肥
12. 黑白	黑	白
13. 氣血	多氣少血	多血少氣
14. 榮衛	衛	榮
15. 心肺	肺	心
16. 經絡	膽經	膀胱經

3. 膽·膀胱의 形象 特징

膽·膀胱의 기본개념에 따르면 膽은 양성음허·기성형쇠·기소혈·담경위주이고, 膀胱은 음성양허·형성기쇠·다혈소기·방광경위주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개념이 어떠한 형상적 특징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하여 《자산선생임상학특강》책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側面과 前面]

○ 膀胱體는 …얼굴 前面이 발달하고, … 膽體는 側面이 발달하고 …⁹⁰⁾

○ 膀胱體는 얼굴이 둥글고 얼굴의 前面이 發達 되어 있다. …, 膽體는 얼굴의 側面이 發達되어 있고, …⁹¹⁾

이상에서 膽體는 側面이 발달하고 膀胱體는 前面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膽·膀胱과 인체의 側面 前面’에서 상술한다.

[圓方]

○ 뱃머리 부분처럼 얼굴이 뾰족한 놈이 膽體인데, …⁹²⁾
○ 膀胱體는 얼굴이 둥글고, …⁹³⁾

85) 袁秉哲, 基礎韓醫學, p. 446

86)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87)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藏府, 外絡於肢節.”

88) 許浚, 東醫寶鑑, 鍼灸 p. 776

89) 地仙선생임상학특강IV, p. 15

90) 地仙선생임상학특강VII, p. 326

91) 地仙선생임상학특강VI, p. 159

92) 地仙선생임상학특강III p. 257-8

이상에서 膽體는 얼굴이 角이 지고, 勝胱體는 얼굴이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精氣神血科]

○ 精血로 되어 있는 사람을 勝胱體, 神氣로 되어 있는 사람을 膽體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氣科와 神科가 합쳐지는 境遇가 많고 精科와 血科가 합쳐지는 境遇가 많다는 뜻이다.⁹⁴⁾

여기서 陰陽을 上下로 구분할 때 精血은 陰盛陽虛에 속하고 神氣는 陽盛陰虛에 속한다. 또 精血을 有形한 것이고 神氣는 無形한 것이므로 精血科는 勝胱體, 神氣科는 膽體로 본 것이다.

[天垂地積]

○ 膽體라는 말은 “陽이 盛하고 陰이 虛하다.” “天垂다.” 이런 뜻이다.⁹⁵⁾

여기서 膽體는 天垂象이고 勝胱體는 地積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天은 陽에 속하고 地는 陰에 속하는데 膽體는 陽盛陰虛하여 天氣는 有餘한데 地氣는 不足하고 勝胱體는 陰盛陽虛하여 地氣는 有餘한데 天氣가 不足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口鼻大小]

○ 膽體는 形이 矮하니 입을 크게 불여놓았다. 그러나 膽體 中에서도 입이 큰 膽體가 있고 입이 작은 膽體가 있다. 또한 勝胱體는 氣가 虚하니까 코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勝胱體도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사람이 있고 코가 작고 입이 큰 사람이 있다.⁹⁶⁾

○ 勝胱體는 대부분 코가 작다. 즉 코가 弱하다.⁹⁷⁾

본래 勝胱體는 形盛氣衰하므로 그 모순을 배제하려면 본래 코가 커야하고 膽體는 氣盛形衰하므로 입이 커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勝胱體는 코가 작고 입이 큰 반면 膽體는 코가 크고 입이 작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勝胱體는 氣虛濕痰하고 膽體는 血虛有火의 病理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四肢와 몸통]

○ 勝胱體란 概念은 陰盛陽虛로 손, 발은 矮고, 몸은 크다는 뜻이 된다.⁹⁸⁾

여기서 勝胱體는 손발이 矮고 몸통이 큰 반면 膽體는 손발이 길고 몸통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발은 諸陽之府이므로 陽에 속하고 몸통은 모든 陰經脈이 모이는 곳이므로 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肥瘦]

○ 膽·膀胱을 肥瘦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몸이 뚱뚱하면 氣虛

濕痰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勝胱體라고 한다. …, 몸이 마르면 血虛有火로 보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膽體라고 한다.⁹⁹⁾

○ 勝胱體는 …, 뚱뚱한 편이다. 膽體는 …, 마른 편이다.¹⁰⁰⁾

○ 膽體와 勝胱體를 구분하는 방법¹⁰¹⁾

膽體	膀胱體
코에 살이 없다. 瘦黑하다.	코에 살이 있다. 肥白하다.

○ 勝胱體는 형틀이 살찌고, …¹⁰²⁾

이상에서 肥瘦로 볼 때 膽體는 마른 편이고, 勝胱體는 뚱뚱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血實氣虛하면 살이 찌고, 氣實血虛하면 마른다.”¹⁰³⁾ 또 “脾胃가 다 왕성하면 잘 먹고 살이 찌나 脾胃가 다 허하면 잘 먹지 못하고 마른다.”¹⁰⁴⁾고 하였고, “形이 肥하고 …것은 陽虛한 것이고, 形이 瘦하고 … 것은 陰虛한 것이다.”¹⁰⁵⁾고 하여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黑白]

○ 그러면 膽體라는 말은 女子가 얼굴이 蒼黑한 사람을 陰이 虛하다고 본다.¹⁰⁶⁾

○ 膽體와 勝胱體를 구분하는 방법¹⁰⁷⁾

膽體	膀胱體
瘦黑하다.	肥白하다.

이상에서 黑白으로 볼 때 膽體는 黑하고, 勝胱體는 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東醫寶鑑》에서는 “面白人은 …, 본래부터 氣虛한데 …, 面黑人은 …, 본래부터 氣實한데, ….”¹⁰⁸⁾라고 하였고, 또 “形이 肥하고 面浮白者는 陽虛하고 形이 瘦하고 面蒼黑者는 陰虛하다고”¹⁰⁹⁾ 하여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剛柔]

○ 膽 勝胱의 境遇

濕體質(膀胱體)은 濕이 많으므로 밤낮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한다. …, 膽體는 陰虛로 보며 잘 눕지 않는다. 強體質이므로 눕는 날이 죽는 날이다.¹¹⁰⁾

○ 筋骨形[膽體]은 강단이 있어서 잘 드러눕지 않으나 한 번 드러누우면 납보다 3倍를 앓는다.¹¹¹⁾

9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159

10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I, p. 326

10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23

10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 p. 295

103) 許浚, 東醫寶鑑, 肉, 肉主肥瘦 p. 289 “血實氣虛則肥, 氣實血虛則瘦”

104) 上揭書, 胃腑, 胃病實虛 p. 150 “脾胃俱旺,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105) 上揭書, p. 444 “形肥而面浮白者, 陽虛. 形瘦而面蒼黑者, 陰虛.”

10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 p. 295

10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23

108) 對譯東醫寶鑑, p. 923 “面白人, 不可多服發散藥, 以其氣虛, 而又虧之也. 面黑人, 不可多服黃芪, 以其氣實, 而又補之也.”

109) 上揭書, 虛勞, 辨氣虛血虛陽虛陰虛 p. 1170 “形肥而面浮白者, 陽虛. 形瘦而面蒼黑者, 陰虛.”

11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35

- 膀胱體로 肉이 發達된 사람은 濕痰이 있는 것으로 본다.¹¹²⁾
여기서 膀胱體는 濕이 많은 체질로 柔弱한 경향이 있고, 胆體는 陰虛하여 燥가 많은 체질로 剛健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皮肉筋骨]

- …, 外가 위주가 되는 것은 膀胱體로 膀胱이 나쁜 것이고 皮肉形이다.(陰盛陽虛) …, 內가 외주가 되는 것은 胆體로 胆이 나쁜 것이고 筋骨形이다.(陽盛陰虛)¹¹³⁾
- 膀胱體로 肉이 發達된 사람은 濕痰이 있는 것으로 본다.¹¹⁴⁾
- 胆體와 膀胱體를 구분하는 방법¹¹⁵⁾

膽體	膀胱體
관골뼈가 나왔다.	관골이 평평하다.

이상에서 인체의 外形은 皮肉筋骨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膀胱體는 皮肉이 발달하고 濕痰이 많다는 것과 胆體는 筋骨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經絡]

- 學生 : 胆 膀胱을 人體部位에 配屬하면 어떻게 됩니까?
芝山先生 : 胆은 人體의 …, 胆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되고, 膀胱은 人體의 …, 膀胱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된다.¹¹⁶⁾
- 足太陽 膀胱經이 나쁜 사람을 膀胱體라고 한다.¹¹⁷⁾
이상에서 담체는 족소양담경이 방광체는 족태양방광경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乳房의 大小]

- 膀胱體는 젖이 나오고 胆體는 젖이 적다.¹¹⁸⁾
여기서 男女를 불문하고 膀胱體는 乳房이 크고, 胆體는 유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東醫寶鑑·乳門》에서는 女子는 陰에 속하는데 陰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와 乳房을 커지게 하고 陰部는 오그라진다.¹¹⁹⁾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방이 크면 陰盛陽虛한 것이다.

[包莖여부]

- 膀胱 胆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 …, 포경수술을 했거나, 몸이 차거나 불알 오그라든다면 膀胱體이다. 만약 …, 포경수술을 안 했고, 몸이 덥다면 胆體로 본다.¹²⁰⁾
여기서 남자 방광체는 포경이고 불알이 오그라들고, 담체는 포경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남자 생식기는 陽氣의 상징이므로 陰

盛陽虛하면 包莖이 되고 불알이 오그라들고 陽盛陰虛하면 發陽되는 것이다. 그래서 《東醫寶鑑·乳門》에서는 남자는 陽에 속하는데 陽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 陰莖은 늘어지고 젖꼭지는 오그라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담체와 방광체의 형상에 대하여 朴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內經》에서 설명한 陰과 陽에 따른 人體部位와 機能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內經》에서는 陽의 속성에 天·日·火·氣·夏秋病·暑·風氣·寤·躁[動]·剛 등을 배속하였고, 陰의 속성에는 至·月·水·形·冬春病·寒·濕氣·瞑·靜·柔 등을 배속하였다. 또 陰陽에 따른 인체 부위 배속은 外·背·六腑·四肢·腠理·上·心肺·上竅·頭·面·三陽經·喉·腰以上·手 등을 陽部位에 배속하였고, 內·腹·五臟·臟腑·下·肝腎·下竅·三陰經·咽·腰以下·足 등을 陰部位에 배속하였다.¹²¹⁾

이러한 膽·膀胱의 形象에 대한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膽體와 膀胱體의 形象 特징

膽體	膀胱體
01.側面·前面	側面 발달
02.面의 圓方	方
03.精氣神血科	神氣科
04.天垂·地積	天垂象
05.口鼻大小	코가 크다.
06.四肢· 몸통	四肢 발달
07.肥瘦	瘦
08.黑白	黑
09.剛柔	剛
10.皮肉筋骨	筋骨 발달
11.經絡	足少陽膽經
12.乳房大小	유방 작다.
13.包莖與否	包莖 아님.

4. 膽·膀胱의 病理 및 症狀 特징

膽은 陽盛陰虛, 氣盛形衰, 多氣少血하고, 膀胱은 陰盛陽虛, 形盛氣衰, 多血少氣하다는 기본 개념에서 나타나는 병리 및 증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組織病과 運行病]

○ 膽體간 肺器, 心器, 肝器가 나쁘다. 即, 그릇이 나쁘거나 津液을 너무 消盡하여 온다. ……, 胆體는 陽盛陰虛이므로 써먹기가 쉽고, 膀胱體는 陰盛陽虛이므로 運行되지 않으므로 氣血이 停滯되어서 痘이 온다.¹²²⁾

여기서 胆體는 陽盛陰虛하므로 臟器와 津液이 고갈되어 즉 조직이 손상되어 痘이 오고, 膀胱體는 陰盛陽虛하므로 氣血이 정체되는 運行病이 잘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陰陽氣血病]

○ 膀胱體는 氣血이 나쁘고, 胆體는 陰陽이 나쁘다.¹²³⁾

121) 백근기, 황제내경에 나타난 형상에 관한 고찰, p. 10

12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p. 93

12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252

○ 그 經絡運動의 通路가 막힌 것을 氣血病이라고 한다. …, 즉 摄生이 안되어 津液을 耗損해서 血脈이 運行되지 않는 痘을 險陽病이라고 한다. …, 즉 氣血이 險陽에게 痘을 주고 險陽이 氣血에게 痘을 준다.¹²⁴⁾

膽體는 險陽이 나쁘고, 膀胱體는 氣血이 나빠서 병이 온다. 여기서 險陽病이란 津液이 손상되어 血脈이 운행되지 않는 병이고, 氣血病이란 經絡이 운행되지 않아서 생긴 병이다. 그러나 병은 주고받으므로 膽體는 險陽이 나빠서 氣血에 痘을 주고, 膀胱體는 氣血이 나빠서 險陽에 痘을 주기도 한다.

[陰陽]

○ 그러면 膽體는 …, 險이 虛하다고 본다.¹²⁵⁾

○ 膽體라는 말은 “陽이 盛하고 險이 虛하다.” …, 補陰시켜주면 된다.¹²⁶⁾

○ 腰痛이 있을 때 膀胱體이면서 鼻孔이 보이는 사람은 加減八味丸을 쓰고, 身形에 痘이 있으면 補腎湯을 쓰며, 陽虛腰痛으로 腰背痛이 있으면 溫腎散을 쓴다.¹²⁷⁾

여기서 膽體는 險虛證이 많고 膀胱體는 陽虛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氣血]

○ 이때 膀胱體는 氣虛濕痰이 기본病理가 되고, 膽體는 血虛有火가 基本病理이므로 다음과 같이 用藥한다.¹²⁸⁾

여기서 방광체는 氣虛하고 濕痰이 많으며, 膽體는 血虛하고 火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動靜]

○ 膽體와 膀胱體를 구분하는 방법¹²⁹⁾

膽體	膀胱體
動하기 좋아한다.	靜하기 좋아한다.

○ 膀胱體는 …, 痘이 들면 …, 몸이 무거워 動하기를 싫어한다. …, 膽體는 …, 痘이 들면 …, 動하기를 좋아하고 靜할 줄을 모른다.¹³⁰⁾

여기서 膽體는 잘 動하고 膀胱體는 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東醫寶鑑·辨證門》에서는 “險證일 때에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 陽證일 때는 몸을 잘 움직이고, ….”¹³¹⁾라고 하였다.

[寒熱]

○ 膀胱 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 …, 몸

12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p. 106-107

12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 p. 295

12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I, p. 329

127)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p. 52

12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I, p. 138

129)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23

13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159

131) 許浚, 東醫寶鑑, p. 343 “凡病, 險證則身靜, …, 陽證則身動, ….”

이 차거나 …면 膀胱體이다. 만약 …, 몸이 덥다면 膽體로 본다.¹³²⁾

○ 膽體와 膀胱體를 구분하는 방법¹³³⁾

膽體	膀胱體
手足에 열이 있다.	手足이 냉하다.

이상에서 담체는 열이 많고 방광체는 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東醫寶鑑·辨證門》에서는 “陽勝則身熱, …, 險勝則身寒, ….”이라 하였다.

[燥濕]

○ 濕體質(膀胱體)은 濕이 많으므로 밤낮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한다. …, 膽體는 險虛로 보며 잘 눌지 않는다.¹³⁴⁾

○ 예를 들면 膀胱體는 舊亂이 오더라도 濕舊亂이 오고, 膽體는 乾舊亂이 온다.¹³⁵⁾

○ 膀胱體로 肉이 發達된 사람은 濕痰이 있는 것으로 본다.¹³⁶⁾

여기서 방광체는 습이 많으므로 습의 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담체는 險虛하여 燥熱이 많으므로 險虛證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霍亂이 생겨도 膀胱體는 濕霍亂이 생기고, 膽體는 乾霍亂이 생긴다고 했다. 《東醫寶鑑·辨證門》에서는 “肥人은 氣虛하므로 寒이 생기며 寒은 濕을 생하고 濕은 痰을 생기게 한다. 瘦人은 血虛하므로 热이 생기며 热은 火를 생하고 火는 燥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热燥이 많다.”¹³⁷⁾고 하여 燥濕과 寒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睡眠]

○ 夢夜 寒熱이 險體(膀胱體) 陽體(膽體)를 만들었다. …, 눈을 감고 사람보기를 싫어하는 것은 險에 屬하는 症이다. 졸음이 많은 것은 陽이 虛하고 險이 盛한 症이요. …, 대개 患者가 눈을 떠서 사람보기를 좋아하는 것은 陽에 屬하고, 졸음이 적은 것은 險이 虛하고 陽이 盛한 症이다.¹³⁸⁾

여기서 담체는 잠이 적고 방광체는 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夢門·睡辨陰陽虛實》에서는 “傷寒과 雜病에 잠이 많은 것은 陽虛陰盛한 것이고 잠이 없는 것은 險虛陽盛한 것이다.”¹³⁹⁾라고 했다.

[臟腑]

○ 學生 : 膽體와 膀胱體는 各各 어느 臟腑가 좋지 않습니까?

芝山先生 : 膽體는 胃, 心, 肝이 좋지 않고, 膀胱體는 脾, 肺, 腎이 좋지 않다.¹⁴⁰⁾

○ 膽體는 心爲主, 膀胱體는 肺爲主로 본다.¹⁴¹⁾

13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298

13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23

13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35

13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p. 57

136)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228

137) 元秦喜 외8인, 精橋 東醫寶鑑, p. 522 “肥人 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 血虛生熱, 热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

13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I, p. 144-145

139) 許浚, 東醫寶鑑, p. 117 “傷寒及雜病, 多睡者, 陽虛陰盛也. 無睡者, 險陽盛也.”

14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p. 15

14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p. 213

○ 膺體와 膀胱體의 증상특징¹⁴²⁾

膽體	…, 胃不好
膀胱體	…, 脾不好

여기서 心肝은 血을 주관하고 胃는 燥를 주관하는데 膺體는 陽盛陰虛, 血虛有火하고 燥熱이 많으므로 胃心肝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이고, 肺腎은 氣를 주관하고 脾는 濕을 주관하는데 膀胱體는 陰盛陽虛, 氣虛濕痰하고 寒濕이 많으므로 脾肺腎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이다.

[左右]

○ 구안와사가 왔을 때는 左右 氣血의 衡平이 깨진 것이므로 癪瘍으로 보고 藥을 쓴다. …, 膀胱體는 右病左斜가 原則이므로 四君子湯에 加味하고, 膺體는 左瘻右斜가 原則이므로 四物湯에 加味하는 癪瘍藥을 쓴다.¹⁴³⁾

○ 手足無力症에 …, 膀胱體는 오른쪽이 나쁘고 膺體는 왼쪽이 나쁘게 되어있다.¹⁴⁴⁾

○ 膺膀胱을 人體部位에 配屬하면 어떻게 됩니까? 膺은 人體의 頭部와 前面과 膺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되고, 膀胱은 人體의 後面과 尾部와 膀胱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된다.¹⁴⁵⁾

여기서 膀胱體는 右側과 下部 · 後面가 안 좋고 膺體는 左側과 上部 · 前面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汗出與否]

○ 膀胱 膺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 남자가 汗이 많고, …면 膀胱體이다. 만약 …, 땀을 안 흘리고, …면 膺體로 본다.¹⁴⁶⁾

○ 膺體와 膀胱體의 증상특징¹⁴⁷⁾

膽體	不汗出, …
膀胱體	汗出, …

여기서 방광체는 땀이 많고 담체는 땀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陽이 성하면 몸에 热이 나오고, 주리가 막히며, …, 땀이 나오지 않으면서 热이 나오고, …, 그러나 겨울에는 견디어내다가 여름에 가서 죽는다. 隅이 성하면 몸이 차고, 땀이 나며 몸이 항상 서늘하고, …, 그러나 여름에는 견디어 내다가 겨울에 가서 죽는다.”¹⁴⁸⁾고 하였다.

[月經의 遲早]

○ 여자는 月經이 빠르면 膺體로 보고, 月經이 느리면 膀胱體로 본다.¹⁴⁹⁾

142)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30

143)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p. 138

144)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139

145)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15

146)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298

147)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30

148) “陽勝則身熱, 膺理閉, …, 汗不出而熱, …, 能冬不能夏, 陰勝則身寒, 出, 身常清, …, 能夏不能冬,”

○ 趙女의 境遇에 膀胱體와 膺體의 區分이 暫昧할 때는 月經이 일찍 나오는가 아니면 늦게 나오는가를 확인하여 일찍 나오면 膺體고, 늦게 나오면 膀胱體이다.¹⁵⁰⁾

○ 또 女子의 月經을 例로 들면 膀胱體는 血虛有寒하므로 月經週期가 늦어지고, 膺體는 血虛有熱하여 때문에 月經週期가 빨라진다.¹⁵¹⁾

이상에서 膀胱體는 寒이 많고 膺體는 热이 많은데 여자 방광체는 血虛有寒하여 월경이 느리며, 담체는 血虛有熱하여 월경이 빠르다.

[大小便]

○ 小便이라는 것은 陽氣의 運行을 말한다.¹⁵²⁾

○ 蓼蕘湯은 氣虛遺尿에 쓰는 藥이므로 肥白한 膀胱體에게 쓰는 것이 좋다.¹⁵³⁾

○ 膺體는 陽盛陰虛 卽, 陰虛內熱로 봐야한다. 이럴 때 便秘가 있는지 여부를 確할 必要가 있다.¹⁵⁴⁾

여기서 膺體는 陰虛하여 便秘가 잘 생기고, 膀胱體는 陽虛하여 小便이상이 잘 생긴다.

[脈象]

○ 膺體는 脈이 盛해야 되는데 盛하지 못하고 弱하다면 이것은 血에 热을 받고 있기 때문에 數하며 弱한 것이다.¹⁵⁵⁾

○ 膀胱體는 …, 脈이 微弱하고, 氣力이 적고, 自汗이 있고, ….¹⁵⁶⁾

이와 같이 담체는 맥이 성하고 방광체는 맥이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에 대하여 《東醫寶鑑 · 診脈 · 肥瘦長短異脈》에서는 “肥人은 맥이 浮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瘦人은 맥이 沈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¹⁵⁷⁾라고 하였다.

[飲食]

○ 膺體와 膀胱體의 증상특징¹⁵⁸⁾

膽體	…, 血이 不足하므로 씹어 먹기를 좋아한다.
膀胱體	…, 氣가 부족하므로 마시기를 좋아한다.

이상에서 방광체는 기가 부족하므로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담체는 혈이 부족하므로 씹어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主症狀]

○ 膀胱體는 …, 痘이 들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고 목덜미가 당기면서 등살이 바르고 허리가 아프면서 팔 다리가 아프게 되고 몸이 무거워 動하기를 싫어한다. …, 膺體는 …, 痘이

149)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298

150)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p. 369

151)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57

152)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344

153)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 p. 319

154)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57

155)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p. 361

156)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 p. 295

157) “肥人實浮, 瘦人實沈”

158) 지산선생임상학특강IV, p. 30

들면 마음이 不安焦燥하고 躁急하고 興奮을 잘 해서 動하기를 좋아하고 靜할 줄을 모른다.¹⁵⁹⁾

여기서는 방광체는 방광경의 유주부위와 脾虛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체는 心膽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膽體는 陽盛陰虛, 氣盛形衰, 多氣少血, 膽經과 관계가 있으며 血虛有火하고 燥熱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膀胱체는 陰盛陽虛, 形盛氣衰, 多血少氣, 膀胱경과 관계가 있으며 氣虛濕痰하고 寒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膽體·膀胱체의 病理 및 症狀의 特징

	膽 體	膀 膜 體
1.組織運行病	組織病 위주	運行病 위주
2.陰陽氣血病	陰陽病 위주	氣血病 위주
3.陰陽	陰虛證 위주	陽虛證 위주
4.氣血	血虛證 위주	氣虛證 위주
5.動靜	動症	靜症
6.寒熱	熱證	寒證
7.燥濕	몸 건조[燥]	濕痰多
8.睡眠	잠이 적다.	잠이 많다.
9.臟腑	心肝胃病多	肺腎脾病多
10.八象	上左前表症多	下右後裏症多
11.汗出	땀이 적다.	땀이 많다.
12.月經	월경 빠르다.	월경 느린다.
13.大小便	변비가 많다.	排尿가 많다.
14.脈象	浮脈 정상	沈脈 정상
15.飲食	好食	好飲
16.主症狀	마음이 不安焦燥하고, 躍急하고, 興奮을 잘 해서 動하기를 좋아하고 靜할 줄을 모른다.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고, 목덜미가 당기면서, 등살이 바르고, 허리가 아프면서, 팔 다리가 아프게 되고, 몸이 무거워 動하기를 싫어한다.

5. 膽·膀胱의 治法 및 治療

앞에서 膽·膀胱의 生理와 形象特徵, 病理 및 症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합당한 治法과 治療를 구할 수 있다.

1) 治法

○ 消渴病은 血이 나빠서 오는 것이지 氣가 나빠서 오는 것이 아니다. 卽, 精少血少를 消渴이라 한다. 그러므로 二陽病이라도 한다. 그래서 補精補血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¹⁶⁰⁾

消渴病은 膽體에게 오는 병인데 精血이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補精補血해야 한다. 즉 膽體는 陽盛陰虛하므로 治法은 補精補血해야 한다.

○ 膽體라는 말은 “陽이 盛하고 隅이 虛하다.” …, 補陰시켜주면 된다.¹⁶¹⁾

159)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Ⅱ, p. 159

160)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Ⅴ, p. 93

161)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29

膽體는 陽盛陰虛하므로 補陰시켜줘야 한다.

○ 膽體와 膀胱체에 대한 酒病을 살펴보면 膀胱체는 濕痰에서 오기 때문에 微汗으로 풀어야하고, 膽體는 胃를 풀어야 한다.¹⁶²⁾

여기서 술병을 치료할 때 膀胱체는 濕痰에 의해서 생기므로 微發汗 利小便하고, 膽體는 燥熱에 의해 생기므로 和胃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陽氣가 虛한 肥人과 隅血이 虛한 瘦人의 治法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形이 肥하고 얼굴이 부식부석하고 흰 것은 陽이 虛한 것이고, 形이 瘦하고 얼굴이 검푸른 것은 隅이 虛한 것이다.”¹⁶³⁾고 하였다. “肥人은 氣虛하므로 寒이 생기며, 寒은 濕을 생하고, 濕은 痰을 생기게 한다. 瘦人은 血虛하므로 熱이 생기며, 熱은 火를 생하고, 火는 燥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熱燥가 많다.”¹⁶⁴⁾고 하였고, “肥人은 氣虛하고 痰이 많으므로 痰을 삭히고 氣를 补해야 한다. 瘦人은 血虛하고 火가 있으므로 火를 滌하고 隅을 滋養해야 한다.”¹⁶⁵⁾고 하여 肥白者는 氣虛陽虛하고 黑瘦者는 血虛陰虛하고, 肥人은 氣虛寒濕痰하여 脓痰補氣하고 行濕燥痰하며, 瘦人은 血虛有火熱燥하여 滌火滋陰하고 滋陰養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膽體는 陽盛陰虛하므로 補陰을 위주로 한다. 또 氣盛形衰하고 多氣少血하여 血虛有火하고 燥熱이 많으므로 滋陰補血·淸熱瀉火시켜야 하고, 膀胱체는 陰盛陽虛하므로 补陽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形盛氣衰하고 多血少氣하여 氣虛濕痰하고 寒濕이 많으므로 补氣·除濕·祛痰·溫補시켜야 한다.

2) 處方

膽體·膀胱체의 治法에 맞추어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用藥을 하면 된다고 본다.

[膽體]

○ 膽體인 사람이 虛勞症이 있을 때 “陰虛即血虛”로 봐서 补天大造丸을 投藥한다.¹⁶⁶⁾

○ 瘦人은 补精을 시켜주는 藥을 쓰면 된다.¹⁶⁷⁾

○ 膽體로 광대뼈가 發達되어 뼈가 굵은 境遇엔 补精을 為主로 治療하고, 광대뼈가 나오지 않고 뼈가 가는 境遇엔 養血을 為主로 치료한다. 그러므로 筋骨形의 사람이 살이 찌고 싶다고 할 境遇에는 四六湯을 준다.¹⁶⁸⁾

○ 運行을 시킬 때는 膽體는 六味 + 知母, 黃柏를 쓰고, …¹⁶⁹⁾

○ 노인이 소변을 자주 볼 때 膽體는 老人腎氣湯을, …¹⁷⁰⁾

이상에서 膽體가 虛勞症이 있을 때는 陰血을 补하는 补天大造丸을 쓴다. 또 膽體를 살찌게 할 때는 补精養血하는 四六湯을 쓰며, 老인이 小便頻數이 있을 때는 补精해주는 老人腎氣丸을 쓴다.

162) 지산선생임상학특강VI, p. 124

163) 對譯東醫寶鑑, 虛勞, 辨氣虛血虛陽虛陰虛, p. 1170

164) 許浚, 東醫寶鑑, 用藥, 人病不過寒濕熱燥, p. 351

165) 上揭書, 用藥, 肥瘦用藥, p. 351

166)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57

167)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p. 245

168) 지산선생임상학특강I, p. 49

169) 지산선생임상학특강III, p. 149-150

170)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344

고, 運行시킬 때는 补精하면서 相火를 없애주는 六味에 知柏을 가해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얼굴자체가 氣血의 衡平을 잡지 못해서 구안와사가 왔을 때는 …, 膀胱은 血虛有火가 基本病理이므로 다음과 같이 用藥한다. …膀胱은 左瘧右斜가 原則이므로 四物湯에 加味하는 癪瘧藥을 쓴다.¹⁷¹⁾

○女子들이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化粧을 못한다면 膀胱은 隅이 不足하므로 二陳湯 合 四物湯을 쓰고,…¹⁷²⁾

○ 形象醫學에서는 月經不調에 膀胱은 清經四物湯을 쓰고,…¹⁷³⁾

이상에서 膀胱가 氣血의 형평이 맞지 않아서 생긴 구안와사가 있을 때는 补血하고 火를 瘦해주는 四物湯에 가미방을 쓴다. 또 여자 얼굴의 기름은 痰이 원인인데 膀胱은 陰血을 보충하며 痰을 제거해주기 위해 二陳湯에 四物湯을 합방하여 쓴 것이며, 月經不調인 경우도 补血하면서 热을 없애주는 清經四物湯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얼굴에 火性을 띤 사람은 鬱火가 많다. 印堂이 흐렸을 때에도 鬱火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얼굴이 붉으면 火가 쉽게 动하는데 火가 动하려는 것을 动하지 못하게 하면 鬱火가 생기게 된다. 이럴 때 六鬱湯을 쓴다.¹⁷⁴⁾

膀胱은 火가 많다. 그러므로 鬱火가 심할 때는 六鬱湯을 쓴다.

[膀胱]

○ 面黑한膀胱體가 脈이 腎-三焦로 腎에 떨어졌는데 배가 南山처럼 나왔고 가래를 캐캐거리며 자꾸 뱉어서 八味丸을 썼더니 좋아졌다.¹⁷⁵⁾

○ 蕃芪湯은 氣虛遺尿에 쓰는 藥이므로 肥白한膀胱體에게 쓰는 것이 좋다.¹⁷⁶⁾

이상에서膀胱은 陰盛陽虛하고 氣虛濕痰이 많으므로膀胱體가 陽氣가 虛하여 痰이 있을 때는 八味丸을 쓰고, 또 氣가 虛하여 遺尿이 있을 때는 蕃芪湯을 쓴 것이다.

○ 얼굴자체가 氣血의 衡平을 잡지 못해서 구안와사가 왔을 때는 …, 膀胱은 氣虛濕痰이 기본病理가 되고, …, 膀胱은 右病左斜가 原則이므로 四君子湯에 加味하고,…¹⁷⁷⁾

○女子들이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化粧을 못한다면 …,膀胱은 六君子湯加味를 쓴다.¹⁷⁸⁾

○ 形象醫學에서는 月經不調에膀胱에는 通經四物湯을 쓰며,…¹⁷⁹⁾

이상에서 氣虛濕痰으로 생긴膀胱體의 구안와사에는 补氣시

키는 四君子湯에 가미하여 쓰고, 여자의 지루성 얼굴에는 补氣祛痰시키는 六君子湯 가미방을 쓰며, 血이 허한膀胱體의 월경부조에는 补血시키며 溫補하는 通經四物湯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만일 痰飲이 있다면 中脘에 壓痛이 있으니 二陳湯을 쓴다.¹⁸⁰⁾

○ 濕體質(膀胱體)는 濕이 많으므로 밤낮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한다. …, 濕氣가 오르는 時期에는 不換金正氣散을 쓴다.¹⁸¹⁾

○膀胱體로 肉이 發達된 사람은 濕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平胃散을 써도 濕이 調節되지만 그 후에 香砂六君子湯을 쓰면 脾胃가 調節되어 濕痰이 없어지므로 體重이 줄어든다.¹⁸²⁾

이상에서膀胱體는 皮肉가 발달되고 氣虛하고 濕痰이 많다. 그러므로 痰이 있을 때는 二陳湯을 쓰고, 濕이 많을 때는 除濕시키는 不換金正氣散을 쓰며, 濕痰이 있을 때는 祯濕平胃하는 平胃散과 补氣豁痰하는 香砂六君子湯을 쓴 것이다.

요컨대膀胱體는 陰盛陽虛·氣虛濕痰하므로 补陽·補氣·除濕·祛痰하는 약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고, 膀胱은 陽盛陰虛·血虛有火하므로 补陰·補血·清熱·瀉火하는 약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膀胱體가 陽虛한 경우는 八味丸과 命門을 溫補하는 약을 쓸 수 있고, 氣虛한 경우는 四君子湯, 补中益氣湯 등 补氣하는 약을 쓰며, 단지 濕痰만 있을 때는 二陳湯, 平胃散을 쓸 수 있다. 그리고 寒濕이 많은 경우는 五積散을 쓴다. 방광체는 氣虛濕痰이 기본병리이므로 六君子湯이 기본방이라고 할 수 있다. 膀胱體가 陰虛한 경우는 六味地黃湯과 腎精을 补하는 약을 쓰고, 血虛한 경우는 四物湯을 쓰며, 鬱火가 많으면 六鬱湯을 쓰고, 燥熱이 많으면 防風通聖散을 쓴다. 담체의 기본병리는 血虛有火함으로 滋陰降火湯, 四物湯+知柏 등을 임상실제에 응용하면 된다고 본다.

3) 鍼治療

○ 침을 놓을 때는膀胱體는 中脘·豐隆에 膀胱은 四關에 놓는다.¹⁸³⁾

○一般的으로 膀胱은 四關을 놓고,膀胱體는 中脘·豐隆을 놓는다. 中脘은 돌아가게 해주는役割을 하는 곳이다.膀胱體는 中脘만 刺針해도 痘이 많이 난다. 中脘에 銮을 뜨는 것도 效果가 좋다.¹⁸⁴⁾

○膀胱體라면 呼吸補瀉를 為主로 해서 쓰고, 膀胱은迎隨補瀉를 為主로 해서 쓰는 것이 좋다.¹⁸⁵⁾

여기서 방광체는 中脘·豐隆에 침을 놓고 呼吸補瀉法을 쓰고, 담체는 四關에 침을 놓고迎隨補瀉法을 위주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鍼法은 瀉法을 위주로 한다. 여기서膀胱體는 몸통이

171)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38

17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52

173)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350

174)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25

175)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66

176)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19

177)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138

178)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52

179)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350

180)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248

181)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335

182)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228

183)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p. 248

184)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364

185)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p. 345

위주이고 氣虛濕痰하므로 濕痰을 灸해주는 中脘·豐隆에 자침하고 호흡으로 氣를 조절하는 呼吸補瀉法을 위주로 한 것이고, 膽體는 四肢가 발달하고 血虛有火하므로 四肢에 있는 四關을 자침하여 臟腑를 조절하고 혈기를 조절하는 邊隨補瀉法을 위주로 썼다고 본다. 이것에 대하여 《東醫寶鑑·鍼灸篇》에서는 “12原穴은 四關에서 나오며 주로 五臟病을 치료한다. …, 12原穴은 五臟에서 365節이 받는 氣味이다. … 四關은 合谷·太衝穴이다. 12경맥의 原穴들은 모두 四關에서 나왔다.”¹⁸⁶⁾라고 하여 四關을 조절하여 臟腑를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膀胱體는 濕痰이 많으므로 濕痰을 치료하는 尺澤·陰陵泉을 補하고 大白·太淵을 灸하고¹⁸⁷⁾, 膽體는 火가 많으므로 相火를 치료하는 隱谷·大都를 補하고 地溝·崑崙을 灸하는 治法을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¹⁸⁸⁾

이상에서 담·방광의 치법과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治法은 담·방광의 형상특징과 생리·병리 및 증상을 참고하여 膽體는 陽盛陰虛하므로 補陰을 위주로 하며, 또 血虛有火하고 燥熱이 많으므로 滋陰補血·淸熱瀉火시켜야 한다. 膀胱體는 陰盛陽虛하므로 補陽을 위주로 하고, 氣虛濕痰하고 寒濕이 많으므로 補氣·除濕·祛痰·溫補시켜야 한다. 치료는 담·방광의 治法에 맞추어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用藥과 鍼灸를 시행하면 임상실제에서 유효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본다.

6. 膽·膀胱의 용어 설정

앞에서朴은 사람을 陰陽論·形氣論·氣血論·經絡論의 으로 구분하여 陽盛陰虛·氣盛形衰·多氣少血·膽經에 속하는 사람을 膽體라 하고, 陰盛陽虛·形盛氣衰·多血少氣·膀胱經에 속하는 사람을 膀胱體로 구분하였다. 또 脈도 같은 방법으로 膽脈·膀胱脈으로 구분하였다.

사람의 形象을 구분할 때 일반적인 陰陽論을 적용하여 陽體·陰體나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왜 膽體·膀胱體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전제조건은 醫學의 對象은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은 組織과 운행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과 사람의 形象과 脈을 구분하는 용어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의 동양철학의 법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 人體에서 운행의 중요성

사람은 父母로부터 形氣를 받고 태어나므로 생명의 유지는 形[組織]과 氣[運行]가 잘 相合되어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靈樞·壽夭剛柔》에서는 “形氣가 서로 어울리면 오래 살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¹⁸⁹⁾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形과 氣의 편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朴이 膽·膀胱으로 形象을 분류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186) 許浚, 《東醫寶鑑》, p. 778 “十二原出于四關, 主治五藏. …, 十二原者, 五之所以聚三百六十五節氣味也. …, (靈樞) ○四關者, 合谷太衝穴也. 十二經原皆出於四關(入門)”

187) 鄭昊承譯, 舍巖 鍼灸正傳, p. 127

188) 鄭昊承譯, 舍巖 鍼灸正傳, p. 116

189) “形與氣相任則壽, 不相任則夭.”

○ 造物主가 사람을 만들 적에 男女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¹⁹⁰⁾

○ 學生 : 사람을 膽體·膀胱體로 구분할 때 다른 말은 다 놔두고 왜 하필 膽·膀胱이란 말을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芝山先生 : 藥이란 것은 對象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對象이란 뭐나? 바로 膽體와 膀胱體다. 사람은 크게 男女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男子 中에도 女子같은 사람이 있고 女子 中에도 男子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四象을 歸納시키면 形盛氣衰(膀胱體)한 사람과 氣盛形衰(膽體)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¹⁹¹⁾

○ 앞에서 모든 形象을 歸納하면 膽體와 膀胱體가 되고, 모든 脈을 歸納하면 膽脈·膀胱脈으로 된다고 설명했었다. 이것은 모두 臨床醫로서 疾病을 가장 簡略하게 分別하여 把握하려는 하나의 方法論이다.¹⁹²⁾

이상에서 질병치료의 대상인 사람을 1차적으로 생식기의 구조[조직]를 기준으로 하여 受射原理에 따라 男女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남자 중에도 여자같은 사람이 있고 여자 중에도 남자같은 사람이 있어서 生理·病理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2차적으로 사람의 形氣盛衰에 따라 기능[운행]의 편차에 입각하여 動靜原理로 膽體와 膀胱體를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사람이 출생한 후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람은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생명을 영위하는데 後天之氣는 天의 淸氣와 地의 穀氣에서 생성된다. 사람이 天의 氣를 호흡하고 地의 味를 수납하면 中焦에서 化氣化血하여 肺로 보내진 後榮衛 氣血이 經絡을 통하여 전신을 운행하게 됨으로써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그래서 《靈樞·經脈》에서는 “음식물이 胃에 들어가면 脈道가 통하여 氣血이 운행된다.”¹⁹³⁾고 하여 음식물에서 생성된 氣血은 經脈을 통하여 運行한다고 하였고, 또 같은 편에서 “經脈은 인체의生死를 결정하고, 각종 질병을 診斷하고 虛實을 조절하니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⁹⁴⁾고 하여 經絡이 생명활동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 學生 : 氣의 榮衛와 味의 榮衛를 설명해 주십시오.

芝山先生 : 氣의 榮衛는 曛夜가 있기 때문이고, 內傷에서의 榮衛는 寒熱이 있기 때문이다.¹⁹⁵⁾

○ 曛夜 寒熱이 陰體(膀胱體) 陽體(膽體)를 만들었다.¹⁹⁶⁾

○ 膽은 운행을 膀胱은 組織을 뜻하며, 담은 운행으로 인하여 조직에 병이 든 것을 방광은 조직으로 인하여 운행에 병이 든 것을 뜻한다. 形이 衰한 사람(膽體)은 입을 크게 불여서 形이 쇠한 모순을 배제하려고 잘 먹어 살이 찌게 하였고, 그러나 입을 發達시키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결국 膽體 中에서도 입이 큰 膽體가 있고, 입이 작은 膀胱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形盛氣衰한 膀胱體는 어떻게 될까? 氣가 虛하니까 이러한 모순을 배제하려고 코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膀胱

190)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Ⅱ, p. 369

191)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Ⅱ, p. 101

192)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Ⅲ, p. 31

193)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194) “經脈者 所以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

195) 지산선생임상학특강V, p. 130

196) 지산선생임상학특강Ⅶ, p. 145

體를 또 나누다 보니까 코가 크고 입이 작은 사람이 있고, 코가 작고 입이 큰 사람이 있다.¹⁹⁷⁾

여기서 사람은 天의 氣를 코로 호흡하고 地의 味를 입으로 수납하여 榮衛 氣血를 만들어 形과 氣를 보충하는데 이때 大氣 중에서도 曛夜에 따라 榮衛로 구분되는 것이 있고 穀氣 중에서도 寒熱에 따라 榮衛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榮衛 氣血은 결국 經絡을 따라 운행하며 빌달한 경락의 속성에 따라 인체의 形象과 生命활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朴은 사람의 形象을 生殖器의 구조에 따라 男女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 形氣盛衰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運行]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남녀구분과 다른 방법으로 形象을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때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는 榮衛氣血이 인체에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데, 形象의으로는 氣盛形衰하여 動的인 사람과 形盛氣衰하여 靜的인 사람으로 2분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形象에 적합한 명칭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氣盛形衰한 유형을 膺體, 形盛氣衰한 유형을 膀胱體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2) 運行에서 經絡의 중요성

한의학의 이론체계는 陰陽五行學說 · 運氣學說 · 藏象學說 · 經絡學說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陰陽五行學說은 한의학이론 체계의 각 방면에 관통되어 있고, 인체의 모든 생리현상 및 병리변화를 인식하고 개괄 설명하는데 이용되어왔다.¹⁹⁸⁾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나눌 때 《靈樞·通天》에는 “太陰之人，多陰而無陽，…，少陰之人，多陰少陽，…，太陽之人，多陽而少陰，…，少陽之人，多陽少陰，…”이라고 하여 陰陽論에 입각하여 유형을 분류하였고,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五行論에 입각해서 木火土金水 五型人으로 분류하였다. 権^{199) i} 주창한 八體質 명칭도 陰陽五行의 용어를 사용한 명칭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용어를 명명할 때는 보통 陰陽五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朴은 사람의 形象을 구분할 때 일반적인 陰陽論을 적용하여 陽體 · 隱體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膺體 · 膀胱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膺體 · 膀胱體도 역시 陰陽論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萬物은 天地의 陰陽二氣가 교합하여 생성되므로 자연계에는 純陰 純陽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陰盛陽虛하든지 陽盛陰虛하던지 陰陽이 和平하든지 하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形象과 脈象을 표현할 때도 단순히 隱과 陽으로 명명하는 것보다 陰盛陽虛와 陽盛陰虛, 形盛氣衰나 氣盛形衰, 多血少氣나 多氣少血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用語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朴이 새로운 용어로 膺 · 膀胱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알기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내외여건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은 時間 · 空間 · 場所 · 方位라는 環境與件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身體內의 與件인 먹고 · 숨쉬고 · 일하고 · 生殖活動하는 것을 절도 있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체의 외부에는 三陰三陽의 六氣가 끊임없이 流行하고 내부에는 手足三陰三陽經의 經氣가 유주하고 있다. 이때 인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皮膚은 인체 내외여건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皮膚에는 九竅와 수많은 毛孔과 汗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체는 이곳을 통하여 내외의 氣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절하여 動的平衛狀態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인체는 皮膚의 開闔作用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氣를 交感疏通하면서 恒常性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체를 감싸는 皮膚은 十二皮膚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十二皮膚은 經絡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朴이 왜 膺 · 膀胱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經絡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經絡學說은 주로 인체의 經絡系統이 가지는 생리기능 병리변화 및 그 臟腑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설로서 한의학의 이론적 체계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침구학의 핵심적인 이론이다.²⁰⁰⁾ 경락은 經脈 · 絡脈 · 經筋 · 經皮 4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經脈과 絡脈은 線 개념이고 經筋과 經皮는 面 개념으로 일정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人體의 구성은 精氣神血을 기본요소로 하며 내부의 五臟六腑와 외부의 外形 그리고 上下內外를 연결하는 經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經絡은 전신의 氣血津液을 운행시키고 臟腑肢節을 연락하여 上下內外를 서로 이어주는 통로이다. 이렇게 經絡이 전신에 두루 퍼져있어서 氣血이 규칙적으로 순행하고, 복잡한 연락관계를 이루어 인체의 五臟六腑 · 四肢百骸 · 五官九竅 · 皮肉筋骨 등 각 조직기관을 연결시켜 인체를 하나의 有機의 인 통일된 整體로 만든다. 이러한 經脈의 중요성에 대하여 《靈樞·經脈》에서는 “經脈은 인체의 生死를 결정하고, 각종 질병을 診斷하고 虛實을 조절하니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⁰¹⁾고 하였다. 그런데 經絡의 명칭 속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 · 五運六氣 · 藏腑 · 經絡의 氣血多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足太陽膀胱經이라면 太陽寒水이므로 陰陽으로는 陽에 속하고, 五行으로는 水에 속하며, 六氣로는 寒에 속하고, 臟腑로는 膀胱에 속하고, 手足으로는 足에 속하며, 氣血多少로는 少氣多血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인체는 皮膚의 開闔作用을 통하여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氣를 끊임없이 交感疏通하면서 恒常性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經皮는 經絡의 한 구성요소이며, 經絡은 인체를 하나의 有機의in統一體로 만들어주며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經絡의 명칭 속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 · 五運六氣 · 藏腑 · 經絡의 氣血多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의학에서 어떠한 용어를 불일 때 陰陽五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朴은 사람의 形象을 구분할 때 陰陽論을 참고하여 陽體 · 膺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담 방광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經絡은 인체를 하나의 有機의in統一體로 구성하며, 經絡의 명칭 속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 · 五運六氣 · 藏

197) 1997년 3월 語錄 중에서(부산행열차에서)

198) 申天浩, 문답식한의학개론, P. 28

199) 권도원 선생, 八體質 鍼法을 개발하였다.

200) 申天浩, 問答式韓醫學概論, P. 181

201) “經脈者 所以決生死,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

腑 · 經絡의 氣血多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臟腑經絡의 명칭으로 용어를 설정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용어는 일반적인 隅陽五行에 따른 명칭보다 더 統體의이며 實質的인 용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十二經脈 중 膽經과 膀胱經을 택한 이유

그런데 왜 十二經脈 중에서 六臟을 내포하는 三陰經으로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 六腑를 포함하는 三陽經 중에서 명칭을 택했을까? 일반적으로 六臟六腑 중 인체를 대표하는 臟器는 水火에 속하는 心과 腎이다. 그러나 두 臟器를 기호로 쓰지 않고 膽과 膀胱으로 선택한 것은 철저한 한의학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즉 단순히 臟腑의 속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臟腑 經絡 중에서 陽盛陰虛와 陰盛陽虛, 多氣少血과 多血少氣한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用語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 診脈門 · 老少男女異脉》에서는 “사람은 땅에서 있기 때문에 땅을 따라 변화하게 된다.”²⁰²⁾고 하였고, 이에 따라 朱肱은 《活人書 · 1卷 經絡》에서 十二經脈 중 足三陰三陽經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체부위를 流走하는 經脈에 대하여 《靈樞 · 逆順肥瘦》에서는 “手三陰經은 胸部에서 手部로 흐르고, 手三陽經은 手部에서 頭部로 흐르며, 足三陽經은 頭部에서 足部로 흐르고, 足三陰經은 足部에서 腹部으로 흐른다.”²⁰³⁾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足三陽經만 손을 제외한 머리 · 목 · 몸통 · 발까지 인체의 전반을 流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靈樞 · 脈度》에서는 手三陰經의 經脈 길이는 3尺5寸이고, 手三陽經의 經脈 길이는 5尺이며, 足三陰經의 經脈 길이는 6尺5寸이고, 足三陽經의 經脈 길이는 8척이라고 하였고, 《東醫寶鑑 · 鍼灸篇》에서 經穴의 數를 살펴보면 足太陽膀胱經은 좌우 합하여 126穴이고, 足少陽膽經과 足陽明胃經은 좌우 합하여 각각 90穴이 되어 다른 經脈들 보다 인체에 대한 점유 면적이 큼으로 인체에서 足三陽經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經絡의 氣血多少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多氣多血한 것은 陽明經이고, 多氣少血한 것은 少陽經 · 少陰經 · 太陰經이며, 多血少氣한 것은 太陽經 · 厥陰經이라고 하였다.²⁰⁴⁾ 이중에서 足三陽經은 氣血多로 구분하면 足陽明胃經은 多血多氣하고, 足少陽經은 多氣少血하며, 足太陽經은 多血少氣하다. 따라서 三陽經 중 少氣多血한 것과 多氣少血한 것에 상호하는 經脈은 足少陽膽經과 足太陽膀胱經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膽은 膽經에서 膀胱은 膀胱經에서 유추한 개념이라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十二經脈 중 사람은 땅을 따라 변함으로足六經을 더 중요시하였고, 足六經 중에서도 인체의 많은 부위를 점유하고 있는 足三陽經이 대표성이 있으며, 이 중에서 多氣少血과 多血少氣를 만족시키는 것은 足少陽膽經과 足太陽膀胱經뿐이

202) “蓋人立形於地, 故從地化也。”

203) “手之三陰, 從藏走至手, 手之三陽, 從手走至頭, 足之三陽, 從頭走至足, 足之三陰, 從足走至腹。”

204) 許浚, 東醫寶鑑, 鍼灸篇, 十二經血氣多少 p. 776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多氣少血, 陽明常多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少陰常多氣少血, 太陰常多氣少血, 此天之常數也。”

므로 膽은 膽經에서 膀胱은 膀胱經에서 유추한 개념이라고 본다.

4) 膽 · 膀胱과 隅陽 · 形氣 · 氣血의 관계

그렇다면 膽 · 膀胱의 두 臟腑 經絡이 陰盛陽虛와 陽盛陰虛, 形盛氣衰와 氣盛形衰, 多血少氣와 多氣少血의 개념에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六氣와 三陰三陽은 標本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太陽은 陽氣가 消盡하여 寒氣를 발하게 되며 陽明은 陽氣가 성하여 陰을 밀리므로 燥氣를 발하고 少陽은 陽氣가 자라나면서 공간을 가열하므로 火氣를 발한다.²⁰⁵⁾ 따라서 足少陽經은 장부로 보면 膽[木]에 속하며, 六氣論의으로 보면 相火에 속하고 이때 오행은 火에 속한다. 반면에 足太陽經은 장부로 보면 膀胱[水]에 속하고, 六氣論의으로 보면 寒에 속하며 오행은 水에 속한다. 그리고 앞장의 ‘陰陽盛衰와 水火의 경우’에서 離火卦(=)은 二陽一陰하고 坎水卦(=)은 二陰一陽이므로 火는 陽盛陰虛하고 水는 陰盛陽虛하며, 陽盛陰虛하면 熱이 많고 陰盛陽虛하면 寒이 많다고 하였다. 여기서 足少陽經은 热 · 火에 속하며 陽盛陰虛하고, 足太陽經은 寒 · 水에 속하며 陰盛陽虛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膽에 대해서 《素問 瞬蘭秘典論》에서는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이라 하였고, 《素問 · 六節藏象論》에서는 “凡十一藏, 取決於膽也”라 하여 모든 臟器가 膽氣의 升發作用에 달려있다고 하였으며, 《東醫寶鑑 · 膽腑 · 膽形象》에서는 “清淨之府”라 하여 膽은 맑고 깨끗한 精汁을 가지고 있어 능히 눈으로 통하여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素問 瞬蘭秘典論》에서는 “膀胱은 州都之官으로 津液을 저장하고 氣化作用을 통해 소변을 排泄한다.”²⁰⁶⁾고 하였다.

이와 같이 膽은 맑고 깨끗한 精汁을 가지고 있어서 上竅인 눈으로 통하여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능과 決斷하는 정신기능과 膽氣가 升發作用을 하여 모든 臟器에 生氣를 蒸騰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膀胱은 津液을 저장하는데 氣化作用을 통해 소변을 下竅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膽腑는 清淨汁 · 上竅 · 決斷 · 升發의 기능이 강함으로 陽의 속성에 속하고, 膀胱腑는 下竅 · 津液 · 小便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陰의 속성에 속한다. 따라서 膽腑는 陽盛陰虛하고 膀胱腑는 陰盛陽虛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形氣와 天地之氣’에 대하여 논술할 때 만물은 天의 氣와 地의 形이 서로 감응하여 생기므로 인체도 形과 氣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陽은 氣로 陰은 形으로 된다고 하였다. 또 “사람은 하늘과 땅의 氣를 받고 생겼는데 天의 陽氣는 氣가 되고 地의 陰氣는 血이 된다.”²⁰⁷⁾고 하여 陽盛陰虛하면 氣盛形衰하고 多氣少血하며, 陰盛陽虛하면 形盛氣衰하고 多血少氣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膽腑와 膽經은 陽盛陰虛 · 氣盛形衰 · 多氣少血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膀胱腑와 膀胱經은 陰盛陽虛 · 形盛氣衰 · 多血少氣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膽 · 膀胱 용어는 隅陽 · 形氣 · 氣血論의으로 朴이 설정한 기본 개념에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본다.

205) 池圭鎔, 새로운한의학터답기 p. 108

206)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入”

207) 許浚, 東醫寶鑑, p. 444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為氣, 地之陰氣為血.”

5) 膽·膀胱과 인체의 側面·前面

건축물이나 기계를 도면에 그릴 때 보통 정면도·측면도·평면도로 나타낸다. 따라서六合인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인체를 상세하게 관찰한다면 평면도에도 上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정면도도 前後에 따라 다르며, 측면도도 左右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인체를 단순히 직육면체와 같이 추상화하여 관찰한다면 상하평면도는 같고, 좌우측면도 역시 같으며, 전후정면도 역시 같게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人體를 평면도로 나타내면 사람의 형상이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左右面이 같은 側面圖로 그리면 사람의 형상은 잘 알아 볼 수 있다. 또 정면도로 그려도 역시 사람의 형상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정면도에서 前後面을 단순히 추상화한 形象은 같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인체의 형상을 나타낼 때 정면도와 측면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身形을 側面圖로 그려놓았다. 그 이유는 전체 인체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도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앞뒤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측면도로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초상화나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정면도를 주로 나타낸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상을 가장 쉽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면도와 측면도는 인체의 형상을 나타낼 때 중요하다.

한편 經絡 중 足三陽經이 유주하는 부위를 살펴보면 足少陽膽經은 측면으로 유주하고, 足陽明胃經은 앞면으로 유주하며, 足太陽膀胱經은 뒷면으로 유주한다. 여기서 측면도는 左右가 같으므로 측면을 유주하는 足少陽膽經이 지배하는 經筋과 經皮의 발달 부위로 나타낼 수 있다. 인체의 정면도를 보면 앞면은 足陽明胃經이 뒷면은 足太陽膀胱經이 유주하지만 추상화된 정면도에서는 앞면과 뒷면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므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膽·膀胱을 氣血論의으로 정의할 때 앞장의 '十二經脈 중 膽經과 膀胱經을 택한 이유'에서 多氣少血과 多血少氣에 합당한 것은 足少陽膽經과 足太陽膀胱經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기서도는 앞면의 足陽明胃經보다 뒷면의 足太陽膀胱經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朴의 주장을 살펴보자.

○ 學生 : 膽·膀胱을 人體部位에 配屬하면 어떻게 됩니까?

芝山先生 : 膽은 人體의 頭部와 前面과 膽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되고, 膀胱은 人體의 後面과 尾部와 膀胱經이 流注하는 곳에 配屬된다.²⁰⁸⁾

여기서 膽은 인체의 頭部·前面·膽經이라 했고, 膀胱은 尾部·後面·膀胱經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은 躥[動]·氣·天·上竅·四肢·腠理·火·外리 하고, 陰을 靜·形·地·下竅·六腑·五臟·水·內라고 하는 일반적인 음양법칙에 따른 것이다. 즉 膽을 陽, 膀胱을 陰에 속하는 부위로 본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측면이 발달하여 앞뒤로 뾰족한 形象은 膽經이 유주하는 經筋과 經皮가 발달한 것이고, 정면이 발달하여 좌우로 넓적한 形象은 膀胱經이 유주하는 經筋과 經皮가

발달한 것이다. 또 足少陽膽經은 多氣少血하고 陽盛陰虛하며, 足太陽膀胱經은 多血少氣하고 陰盛陽虛하기 때문에 膽體는 인체에서 陽部位가 발달하고 膀胱體는 陰部位가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朴은 膽體는 側面이 발달하고, 膀胱體는 前面이 발달했다고 하였고, 또 측면이 발달한 사람은 動的이고, 전면이 발달한 사람 즉 넓적하게 생긴 사람은 靜의이라고 하였다.

6) 膽·膀胱과 奇偶數

○ 森羅萬象은 物象과 卦象과 數理로 풀 수 있다. …, 膽은 한 字로 陽을 뜻하고, 膀胱은 두 字로 陰을 뜻한다.²⁰⁹⁾

《周易》의 주장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천지만물은 모두 陰陽 二元으로 성립한다. 하늘은 陽 땅은 陰, 해는 陽 달은 陰, 낮은 陽 밤은 陰이다. 剛強한 것은 陽 유순한 것은 陰, 높은 것은 陽 낮은 것은 陰, 밝은 것은 陽 어두운 것은 陰, …, 흘수는 陽, 짹수는 陰, … 이런 식으로 天地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물은 陰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⁰⁾고 하였고, 《靈樞·根結》에서는 "陰道偶, 陽道奇"라 하여 數理의으로 陰陽을 구분하면 흘수는 陽에 속하고 짹수는 陰에 속한다. 《東醫寶鑑》에서는 "天地가 비록 크다할지라도 形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지 形이 없이는 역할을 할 수 없고, 陰陽이 비록 묘하다 하지만 氣가 있어야 역할을 하지 氣가 없으면 역할을 할 수 없으며, 五行이 비록 至精하지만 數가 있어야 역할을 하지 數가 없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²¹¹⁾고 하여 數理에 대하여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陰과 陽'을 수리적으로 구분하면 '陽'도 한 글자로 흘수이고 '陰'도 한 글자로 짹수이지만 지금까지 논한 膽·膀胱에 대하여 수리적으로 풀어보면 '膽'은 한 글자이므로 陽에 속하고, '膀胱'은 두 글자이므로 陰에 속한다.

이와 같이 膽·膀胱을 수리적으로 살펴보아도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膽·膀胱이란 용어는 단순히 陰體·陽體라고 하는 것보다 인체를 구성하고 수리적으로 합당한 膽膀經絡 용어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朴이 사람을 男女이외에 形氣盛衰에 따라 動靜原리로 나타나는 形象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 새롭게 명칭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로 왜 陰體와 陽體가 아닌 膽膀經絡에 속하는 膽과 膀胱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 膽·膀胱이란 용어가 朴이 설정한 기본 개념과 일치하며, 韓醫學과 陰陽哲學에도 합당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요컨데 膽·膀胱은 陰陽論을 참고하여 설정한 용어로 膽은 膽經과 膽腑에서 膀胱은 膀胱經과 膀胱腑에서 유추한 개념이며, 膽은 陽盛陰虛·氣盛形衰·多氣少血·膽經發達·側面發達을 뜻하고, 膀胱은 陰盛陽虛·形盛氣衰·多血少氣·膀胱經發達·前面發達을 뜻한다. 그리고 膽·膀胱이란 용어는 단순히 陰體·陽體라고 하는 것보다 인체를 구성하고 수리적으로 합당한 膽膀經絡 용어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209) 1997년 6월 동학사 원행 어록 중에서

210) 南晚星, 新釋三經 Ⅲ 周易, p. 19

211) 許謐, 東醫寶鑑, 身形, 虛心合道, p. 75 "天地雖大, 能投有形, 不能投無形。陰陽雖妙, 能投有氣, 不能投無氣。五行至精, 能投有數, 不能投無數。"

결 론

이상에서 朴이 주장한 膽 · 膀胱에 대한 개념과 생리 · 병리 · 형상 · 증상 · 치법 및 치료에 관해 《지산선생임상학특강》 책을 위주로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왜 膽 · 膀胱이라는 용어를 설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膽 · 膀胱의 개념은 陰陽論의으로 볼 때 膽은 陽盛陰虛하고 膀胱은 陰盛陽虛이며, 形氣論의으로 보면 膽은 氣盛形衰하고 膀胱은 形盛氣衰하며, 氣血論의으로 볼 때 膽은 多氣少血하고 膀胱은 多血少氣하며, 經絡의으로 보면 膽은 足少陽膽經과 膀胱은 足太陽膀胱經에 속한다. 膽 · 膀胱에 대한 形象特徵과 理法方藥은 한의학 이론과 일치하며, 임상실제에서도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用藥과 鍼灸를 시행하면 유효한 효과를 볼 수 있다. 膽과 膀胱이라는 용어를 설정한 이유 ; 朴은 사람의 形象을 男女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 形氣盛衰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運行]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形象을 구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때 氣盛形衰하여 動的인 사람과 形盛氣衰하여 靜的인 사람으로 2분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形象에 적합한 명칭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氣盛形衰한 유형을 膽體라 하고 形盛氣衰한 유형을 膀胱體라고 명명하였다. 인체의 運行은 주로 氣血의 운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經絡은 氣血의 운행통로이며 사람의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經絡의 명칭 속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 · 五運六氣 · 藏象 · 氣血 상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陰陽五行에 따른 명칭보다 經絡에 입각한 용어가 더 統體의이며 實質의인 용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十二經脈 중에서 사람은 평을 따라 변함으로 足六經이 더 중요하고, 足六經 중에서도 인체의 많은 부위를 점유하고 있는 足三陽經이 가장 대표성이 있으며, 이 중에서 多氣少血과 多血少氣를 만족시키는 것은 足少陽膽經과 足太陽膀胱經뿐이므로 膽은 膽經에서 膀胱은 膀胱經에서 유추한 용어라고 본다. 膽腑와 膽經은 陽盛陰虛 · 氣盛形衰 · 多氣少血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膀胱과 膀胱經은 陰盛陽虛 · 形盛氣衰 · 多血少氣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膽腑經絡에서 유추한 膽 · 膀胱 용어는 朴이 주장한 陰陽虛盛 · 形氣盛衰 · 氣血多少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그리고 足少陽膽經은 側面을 流注함으로 側面의 經筋과 經皮가 발달하고, 足太陽膀胱經은 後面를 流注하기 때문에 後面의 經筋과 經皮가 발달하여 각각 얼굴의 側面과 前面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形象에 膽 · 膀胱이란 용어를 설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또 膽 · 膀胱 용어는 數理論의으로 보아도 음양철학의 이치에 맞는다. 그러므로 形象의 명칭을 붙일 때 단순히 陰

體 · 陽體라고 하는 것보다 陰陽論과 數理論의으로도 합당하며, 인체를 대표할 수 있는 膽腑經絡의 명칭으로 膽 · 膀胱의 용어를 설정하는 것이 더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膽 · 膀胱의 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姜天奉, 易學啓蒙研究, 퇴계학연구원, 서울, 1974.
2. 南晚星, 新譯三經 III 周易, 玄岩社, 서울, 1969.
3.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4.
4. 裴秉哲, 基礎韓醫學, 成輔社, 서울, 1997.
5. 徐珉旭, 體質醫學原論, 成輔社, 서울, 1998.
6. 申天浩, 問答式韓醫學概論, 전통의학연구소, 서울, 1993.
7. 池圭鎔, 새로운한의학터닦기, 일중사, 서울, 1999.
8. 鄭昊泳譯, 舍巖 鍼灸正傳, 杏林出版社, 서울, 2000.
9. 元秦喜 외8인, 精校東醫寶鑑, 단촌글방, 서울, 2000.
10.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5.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1.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1.
14.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00.
15.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지산출판사, 서울, 1996.
16.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 지산출판사, 서울, 1997.
17.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II, 지산출판사, 서울, 1997.
18.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V, 지산출판사, 서울, 1998.
19.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 지산출판사, 서울, 1998.
20.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 지산출판사, 서울, 1998.
21.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VII, 지산출판사, 서울, 1999.
22. 嚴東明, 榮衛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과 석사학위논문, 1996.
23. 백근기, 황제내경에 나타난 형상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대학원 한의과 석사학위논문, 1999.